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추석 맞아 경동원서 '따뜻한 나눔' 실천

✎ 신연경 | ① 승인 2025.09.24 15:1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수원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경동원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후원품을 전달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수원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경동원을 찾아 후원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이뤄진 이번 나눔은 경동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으며, 전달된 후원품인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은 생활용품·먹거리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종성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추석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촌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경동원은 1952년 설립된 아동복지시설로 ‘아동 인권보호, 전인적 발달도모, 안락하고 편리한 환경’을 운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한 영농도우미, 깨끗한 농어촌 만들기를 위한 대한민국 새 단장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연경 기자



신연경 shine@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